



어떤 시련 있어도 영생 신앙 포기 못해요

2003년 8월 주님께서 구속당하시어 옥중에 가시게 되었고, 10월 수원법정에서 첫 공판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허락을 받고 참석할 수 있었다. 흠 하나 없으신 하늘의 분이 법정에서 서시는 날 전국적으로 온 천지가 우는 듯비가 내렸고, 수원 법정 위에만 푸른 하늘이 보였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는 구세주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죄 담당하시는 큰 수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주님이 계시 그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법지 못한 아쉬움 가득한 발걸음으로 나오며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 높은 곳에 흰 구름 기둥으로 석 삼(三)자가 보였다.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하늘을 통하여 보여주시기에 감사하며 돌아왔다.

출가

그해 가을을 살며 그림 같은 하늘을 많이 보았다. 카메라가 있으면 꼭 담고 싶은 그림 같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감사하며 지냈다. 큰 딸이 전주 경상대 학생이라 그랬는지 가족들이 진주로 이사를 왔고, 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바쁘게 살았지만 집안일도 하고 애들을 살펴주었다. 하지만 영생을 향한 절실한 내 신앙을 남편과 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급기야 병원에 감금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두 달을 지내며 마음으로 매일 예배를 보며 기도를 계속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갔다. 얼마 후 주님의 보공소식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사망을 밀려오신 사망과는 상관없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비싼 병원비 탓인지 남편이 나를 퇴원시켰고 집으로 왔으나 신경이 예민하던 둘째 딸은 칼을 들고 나를 쥐어 죽였다. 겨우 말렸으나 도저히 그대로 지낼 수 없는 상황임을 간파했다.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포기하는 일이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될 때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기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집에 있을 수 없으며, 내 소중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나 역곡으로 왔다. 남편이 왔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진실이 통하지 않음을 알기에 모른 채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편안하다는 꿈 꾸게 돼

그때까지 지내오며 내속의 마귀를 떨치는 열매경(滅魔經)을 늘 외우며 나아왔다. 이 기도를 외우면 자신속의 마귀가 죽고 온 세상 마귀도 죽어간다. 또한 원하는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구세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 기도를 계속해서 하며 어려운 고비를 지내왔다. 삼중 공장에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왔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였다. 큰딸, 둘째딸, 셋째딸, 넷째딸 순서대로 날 보며 웃으며 지나갔다.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안도감으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모든 것을 절대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난 신앙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세상의 죄악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먼저 선택하여 이끌어 주셨기에 책임과 사명이 큼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하며 지내왔다.

결례처럼 고티마운 것이 있을까

공장 일을 열심히 하며, 제단에 다닐 때 청소하시는 장로님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띄어 틈틈이 청소를 하게 되었다. 청소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자연스럽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내 집 내 몸처럼 여겨보기도 하며, 제단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였다. 그런데 청소할 때 꼭 필요한 걸레가 그렇게 고티마운 수가 없었다.

결례

어려한 오물도 거리끼지 않고 아무리 더러워도 마다하지 않아



어느날 옥상에 올라가 보니 무지개가 멋지게 남북을 가로질러 서 있었다

자신의 소임인양
독특히
다묘 맑혀주는
고마운 걸레

이 소중한 걸레처럼
만민의 죄를
씻어 맑혀주시는
구세주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너무나 깨끗하신 존재
하나
핏값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고자

만민의 죄를 담당하사
사해주시고
그 죄 오염 받아 고생하시고
스스로 맑히시니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창평화와
새생명을 누리며
백천 복을 받사오니

나와 온 세상을
맑히고 맑히시어
광명한 빛으로

이루세리라
너무나 소중한 웃음

제단에 나오기 시작하여 수년간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웃음에 대한 말씀이었다. 계속 웃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 자신을 보니 너무 웃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해 보았다. 기도를 한 다음에 웃으려고 하면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웃어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가 같이 조금씩 열렸다. 삼중에 왔어도 틈이 나면 웃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옥소에서는 열사람들에게 누가 될 수 있기에 소리 내어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웃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아랫배에 힘이 가며 웃음소리는 밖으로 내지 않고 속에서 웃는 것이다. 하 하 하 열마든지 웃을 수 있었고, 소리 내어 웃는 것보다 더 수월했다. 어느 때인가 웃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웃고 난 후 자신도 모르게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 속에서 나왔다. 웃음으로 마귀가 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발생하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수년 전에 주님의 웃음에 대한 말씀을 모아 정리한 것을 복사하고 코팅하여 화장실에 앉으면 용무를 보며 읽고 웃

을 수 있도록 화장실에 말씀을 붙여놓은 날이었다. 오후에 5층 옥소에서 한 분이 "무지개다" 하여 밖을 보았더니 바라보이는 제단 오른쪽 편에 하늘에서 아래로 일자로 붉은 무지개가 서있었다. 맑은 날씨에 붉은색 일자의 큰 무지개는 단순한 무지개가 아니었다. 바로 성령의 빛이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순간 깨달았다. 주님께서 웃음에 대한 말씀을 알리고 붙이는 일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웃는 일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아낌없이 웃어요

웃으면 만사형통
웃으면 만병통치
웃음으로 영생해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구세주의 말씀

나의 생각까지
모든 것 있어버려요

구세주를 바라봐요
귀한 말씀 기억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늘 생각해요

기쁨과 즐거움
힘이 차고 넘쳐는
나날이 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웃음
저버리지 말아요

우리의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큰 힘이 되며
온 세상을 맑힐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요
너무나 귀한 웃음
우리
아낌없이 웃어요!

자연을 아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어느 때부터는 썩이 나는 철에 인근의 들에 나가서 썩을 캐게 되었다. 푸른빛의 초목과 자연이 마냥 좋고, 향기 좋고 몸이 좋은 썩을 즐거운 마음으로 몰두하며 캐니, 나를 잊어버리고 또한 달리 운동이 상당히 되었다. 틈 날 때마다 나가서 열심히 캐니 나갈 때마다 많은 썩을 캐게 해주었다. "구세주께서는 만민의 사정에 동참하시고 빛이 되어주시기도"하는 고마운 분이심을 절실히 느꼈다. 썩을 손질하여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떡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나눠 먹는 소중한 베품도 하게 해 주셨다.

몇 해 전 절기행사 때 2부 행사가 끝날 무렵 악단에서 아주 흥겨운 민요를 연주했다. 맘은 즐겁고 신명나게 춤도 추고 싶은데, 나가서 춤을 출 용기가 전혀 없고 도저히 부끄러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겨보리라 마음먹고 나가서 춤을 추는데 어색하고 잘 안됐지만 일단 내 마음을 이긴 것이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긴 것이다." 그 뒤로 행사 때마다 나가서 흥겨운 민요의 가락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하였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재작년 말 제품을 출고할 날짜가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 되어 아주 바쁘게 또 늦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무지개가 났다고 누군가가 외쳤다. 일손을 놓고 모두 창가로 갔다. 왼쪽 편 하늘에서 긴 곡선을 그리며 오른쪽 하늘로 무지개가 있는데 얼마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와!" 하고 감탄을 하며 바라보았고, 앞쪽 가까운 무지개를 바라보는데 붉은색 빛은 빛을 발산하는 듯 살아서 약동하는 듯, 또한 뜻 깊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듯 아주 특별한 빛이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함께하시며, 은혜와 힘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다.

구세주의 실체는 빛이다. 성경(요한복음 1:1)에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써여 있다. 이렇게 찬란하고 변화무쌍하신 빛의 구세주를 바라보았고, 지극히 아름다운 향기의 빛을 느껴보았고, 또 몸으로도 강한 생명력의 빛을 느껴본 소중한 체험이었다.*

장선숙 / 보광패션

신라금관의 곡옥, 무궁화 씨앗 상징

경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총의 금관, 황남대총의 금관, 천마총의 금관에는 곡옥(曲玉)이 달려 있는데, 이는 고구려 금관이나 백제 금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그리고 경북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가야 금관(국보 제138호)에도 곡옥(曲玉)이 달려 있다. 금관에 달린 곡옥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서 기원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필자는 신라 금관과 가야 금관에 달린 곡옥이 곧 무궁화 씨앗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군의 민족이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의 건립할 때, 제일 먼저 시리아에서 가져온 무궁화 씨앗을 천제단 뜰에 심었는데, 그 근거로 고조선 근화문(槿花文) 수막새에서 고조선 백성들이 무궁화 씨앗을 심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 민족의 실체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세운 단군 민족의 실체는 성경역사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낳은 다섯 번째 아들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누차 언급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그런데 육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진 다음부터 이 세상을 마귀가 집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마귀 세상에서 구세주를 배출하려니 마귀의 눈을 속이고 마귀가 알지 못하게 하면서 숨겨서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끈고림에 처해 있는 입장이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였던 단지파는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고,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집집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였다.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금관에 달린 곡옥의 비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기원전 1406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단지파에게 해당되는 기원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단지파는 가나안에서 블레셋 민족과 약 150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승부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단지와 삼손마저 죽게 되자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단지파의 족장들과 단지파의 제사장(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후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단지와 백성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시리아에 만발한 무궁화를 단지파 민족의 꽃으로 삼음

단지와 백성들은 기원전 1248년에 지금의 레반트 남쪽 소라 성읍을 떠나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시리아를 경유할 때, 길가에 활짝 핀 무궁화가 길게 가로수처럼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단지파에서 영생을 권위할 구세주가 출현한다는 의미로 시리아 원산지의 무궁화를 단지와 민족의 꽃으로 삼게 하였다. 시리아를 지나 이라크, 이란의 북서쪽을 경유하여 카스피 해(海) 서안의 바쿠(Baku;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에 도달하였고, 바다를 만난 우리 민족은 바



곡옥이 달린 금관총 신라금관(좌), 무궁화 씨앗을 심는 고조선 사람들; 근화문 수막새(오른쪽 상), 무궁화 꽃씨의 실제 모습(오른쪽 아래 가운데), 무궁화 봉오리 실제 모습(오른쪽 아래 우)

다를 건너갈 때, 바쿠에서 무궁화(Hibiscus syriacus) 씨를 채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쿠는 북위 40도선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4도로 온화하여 무궁화가 꽃피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된다. 무궁화의 재배조건은 최소한 영상 몇 도가 되어야 한다. 카스피 바다를 건넌 한민족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수원(水源)이 풍부한 알타이 산맥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시 우거(寓居)한다는 것이 100여 년 동안 살게 되었고, 그때 2세들이 자리하면서 모국어가 되는 히브리어를 잊고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언어교체를 겪고 다시 몽골초원을 지나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마침내 대동강변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서아시아에 하나님의 선민(選民)을 그냥 놔두면 히틀러, 뭉스

린, 스탈린에 의해 모조리 몰살당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단지파로 하여금 동쪽 멀리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을 숨겼던 것이다.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출발한 단지와 백성들은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여 알타이산맥까지 오는 데 일 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알타이산맥 부근은 무궁화가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알타이산맥에 도착하자마자 단지파의 젊은 제사장과 젊은 족장들로 구성된 첩병은 무궁화 씨앗을 소지한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알타이산맥의 협로를 통과하여 몽고초원으로, 몽고초원에서 만주를 경유하여 압록강을 건넌 후 남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점지한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무

궁화 씨앗을 심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기원전 1247년을 고조선 개국연대로 볼 수 있겠다(2016. 8.1자 716호 실린 '단지파는 기원전 1248년에 동쪽으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참조).

고구려와 백제의 금관에서는 곡옥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

기원전 13세기 중반부터 한반도 고조선과 알타이산맥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단지와 민족이 되는 한민족은 몽고초원에서 유목민족으로서 기세를 떨치고 또한 만주 지역으로써 이동과 요사까지 진출하였다. 심지어 일부 단지와 백성은 추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진출하여 에스키모로서 생존하였다. 천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었던 고조선은 불행히도 중국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 기원전 108년 대동강 유역(고조선 수도)에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설치되고 이후 400여 년 간 중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알타이어를 사용하던 한민족에게 한문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낙랑군의 강압에 싫증난 고조선 수도의 백성들 중 일부는 함경도로 가서 부여 나라를 세우고 또 다른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三韓)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에 부여에 살던 주몽이 두만강을 건너 만주에 가서 고구려를 세우고 주몽의 아들 온조가 어머니 소서노와 함께 압록강을 건넌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하였다. 그런데 함경도에 자리 잡은 부여와 만

주에 자리 잡은 고구려에는 무궁화가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백성들은 고조선 수도에 있는 천제단(天祭壇)처럼 제단 주변에 무궁화를 심는 풍습을 계승할 수 없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부여, 가까이는 고구려에서 파생된 백제는 비록 무궁화가 자생할 수 있는 지역에 나라를 세웠지만 몇 세대를 거쳐 오면서 이미 고조선 시대의 무궁화 사랑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금관에 무궁화 씨앗을 상징하는 곡옥을 매달 생각조차



비취색 곡옥이 달린 가야금관(경북 고령 출토)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 수도(대동강 유역)에서 일부 백성들이 강원도 쪽으로 가서 신라 나라의 기틀에 마련하였는데, 그곳은 무궁화의 씨앗을 심어도 잘 발아되었다. 이후 남쪽 진한지역까지 진출하여 경주에 신라의 수도로 삼고 중국에 국서(國書)를 보낼 때 '신라'라는 국명 대신에 근화향(槿花鄕) 즉 무궁화 마을이라고 썼다. 이처럼 고조선 시대의 무궁화 사랑이 이어져 신라 금관에 무궁화 씨앗을 상징하는 곡옥을 매달아 무궁화와 같이 장생(長生)을 염원하였으며 금관의 정화(眞花) 역시 무궁화 봉오리임을 알 수 있다.*

박태선 기자